

李退溪의 知的自我 定義의 관한 考察**

웨이밍 투 (Wei-ming Tu)*

1558年 음력 5月 6日, 이퇴계는 자신의 親友나 弟子들에게 때때로 쓴 편지를 모은 書翰集에 포함된 21通의 편지들은 「退溪全書」에서는 「自省錄」으로 따로 분류되었다. 이 「自省錄」이 퇴계생시에 출판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원문은 최소한 그의 문인들이나 친우들 사이에서는 修己의 正法이나 經典을 읽는 正道, 또는 治國을 하는 正法과 같은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大家의 熟見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回看되었음은 확실하다. 「自省錄」은 또한 퇴계가 儒家로서의 삶을 택하고, 朱熹(1130~1200)의 해석을 따르며 학자로서의 召命을 추구하게 된 실존적 선택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를 해 준다. 퇴계가 자신이 쓴 저작들 가운데, 이 書翰들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짧은 서문에 부친 날짜에서도 나타난다. 그 날은 嘉端 戊午年 단오 바로 다음 날이었다.¹⁾

우리는 이 서문에서 퇴계가 「自省錄」안에 있는 편지들을 특별히 생각했으며, 그것은 그가 교환한 편지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그는 여기에 기록하기를, 친구들과 往復討論에 있어서 그 말들은 부득히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만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한다 하였다. 즉 이미 말한 뒤에 저쪽에서는 잊지 않았지만 자신이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자신은 잊지 않았지만 저쪽에서 잊

* 하바드대학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0호(1983) 게재논문

1) 自省錄序, 退溪全書, 4卷(보충;서울:成均館大學出版部, 1978), III, p.151.

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양쪽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自省錄」에 있는 편지들은 그렇지 않다. 그는 그것들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때때로 다시 들춰 열람한 뒤에도 그 편지들은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참되게 傳達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더우기 그는 이 편지들이 자신의 學問的 討論을 개관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²⁾ 비록 그 서문만을 통해서도 무엇때문에 퇴계가 이 書信들을 한권의 책으로 묶었는가를 알 수 없지만, 그가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그가 분명히 자신의 나이를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퇴계노인으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³⁾ 그리고 58세의 나이에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퇴계가 자신이 정말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대하여 공적 言明을 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退溪年譜」를 열람 본다면, 1558년이 그의 일생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퇴계가 공직에서 물러난 해로만 되어 있을 뿐이다.⁴⁾ 퇴계가 閏7월에 조정에 올린 사임장을 보면, 그가 관직을 사퇴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월에 成均館의 除授되었고 이어서 짧은 在京기간에 최소한 두가지의 다른 높은 관직을 갖게 되었다.⁶⁾ 그렇지만, 그의 知的인 발전을 탐구해 보면, 우리는 그의 知的 자아정의에 대한 대단히 매력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즉 퇴계가 爲己之學이라는 儒學의 이념을 체현하고, 朱熹의 전통속에서 해석적인 학문의 정점으로 나가는 경이적인 시도를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물론 퇴계가 爲己之學을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인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가 修己라는 것을 平生을 통하여 버리지 않은 것처럼

2) Ibid.

3) Ibid.

4) 그의 年譜를 보라. 言行錄, 7:7a~8b; 退溪全書, IV, p.26.

5) 言行錄, 7:8a~8a; 退溪全書, VI, p.26.

6) 言行錄, 7:8a~b; 退溪全書, VI, p.26.

보인다. 그러나 탐구를 통하여 본다면, 퇴계에 있어 眞正으로 뛰어난 강점은 그가 老年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그의 知的인 생애중에서 나머지 사반기동안 놀라운 수용력과 창조성을 가지고 도덕적 용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스스로 그 당시에 자기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확실히 믿었다. 그의 편지나 詩를 통해서, 우리는 퇴계가 자신이 학문을 추구하는 데 남은 여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그는 그릇된 데에 자신의 많은 精力을 낭비했으며, 자신이 眞知하고 체험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다.⁸⁾ 긴박감과 자신의 『召命』에 전념코자 하는 그의 顯望은 이 시기에 쓴 그의 著作 前편에서 되풀이되는 주제로서 뚜렷한 특징이 되고 있다. 그가 과거에 있어서 失手라고 느끼는 것과 미래에 있어 새로운 희망찬 전망을 하는 뚜렷한 대조에 의해, 우리는 이 시기가 퇴계에 있어 진실로 중요한 전환기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퇴계의 학문에 있어, 유일한 뚜렷한 특징은 그가 李朝에 朱熹의 儒學을 충실히 전달한 데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되어 왔다. 실로 퇴계는 때때로 한국의 朱熹라고 불리워져왔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에서도 주장했듯이, 퇴계의 역할을 단순한 전달자로서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퇴계가 자신의 유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 朱熹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빈번히 여러 학문적 문제를 중재할 때나, 또는 자신의 영감의 근원으로서 朱熹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 그에게 있어 朱熹는 유학의 권위자였다. 그러나, 퇴계가 朱熹의 全作을 접한 것은,

7) 그의 詩를 위해서는, 退溪先生文集을 보라. 2:42a, 退溪全書, I, p.94. 1558년에 쓴 그의 편지를 보려면, 文集을 보라. 12:26b~27b (全書, I, pp.471~472);23:9b~10a(I, p.552);24:21b~24b(I, pp.586~587);25:1a~2a(II, p.1);27:28a~b(II, p.55). 가장 이것을 잘 드러내는 文章으로서, 李珣(栗谷:1535~1584)에게 보낸 그의 편지를 보라. 14:17a~25b (I, pp.369~373).

8) 自省錄, 退溪全書, 1:22b~23a (IV, pp. 163~164);1:33b~34a (p.169);1:54a~b (p.179)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의 生の 후반기였기 때문에, 퇴계는 南宋의 大家의 저서를 初學者로서가 아니라 성숙한 학자로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퇴계는 朱熹의 정통성을 맹목적으로 신봉할 만큼 『社會化』되지는 결코 않았었기 때문에, 朱熹의 사상에 있어 기본적인 철학적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가 朱熹를 받아들인 것은,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발견이었다. 그가 朱熹에서 발견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李朝의 정치 문화에 있어 朱熹의 존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퇴계가 四書에 대한 朱子의 注와 같은 경우처럼 朱子의 학문의 타당성을 승인할 소인을 갖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고 할지라도, 明에 와서 朱子가 儒道에 대한 진정한 대변자인가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는 보다 복잡해졌다. 儒家의 經典에 대한 주석가로서의 그의 권위가 당연시 여겨졌을 때, 朱熹의 학문의 타당성이 쉽게 받아들여졌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朱子의 死後 3백년동안 이 이것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 朱子의 추정자들은 공격을 받았다. 중국에 있어 소위 心學의 출현은 朱熹 사사의 근거가 되는 가정들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 南宋의 大家를 옹호하기 위해서, 퇴계는 陳獻章(白沙, 1428~1500)이나 王守仁(陽明, 1472~1529) 같은 독창적인 사상가들의 비판에 대처해야만 했다.⁹⁾ 朱熹에 대한 자신의 귀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퇴계가 문제들을 새로운 문맥에서 생각해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단순히 朱熹의 말에 호소할 수는 없었다. 그는 朱熹의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논증과 설득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므로 퇴계를 朱熹 철학의 『창조적 해석가』로서 특징짓는 것은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퇴계가 진실로 창조적 해석가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실제로 朱熹 철학에 대해 무엇을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에 대

9) 투 웨이밍, (杜維明)『李滉의 心에 대한 인식』, 退溪學報, No.19 (10月, 1978), 455~467.

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의 논문 『朱熹의 理哲學에 대한 퇴계의 창조적 해석』은 이 문제에 대한 시도이다.¹⁰⁾ 그러나 여기서의 우리의 주된 관심은, 朱熹에 대한 그의 신봉이 퇴계로 하여금 자아정의를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데 있다. 「退溪年譜」를 보면 퇴계가 자신의 유명한 「朱子節要」를 완성한 것은 그의 老年의 위기 두해 전인 1556년으로 기록되어 있다.¹¹⁾ 節要是 朱熹의 書札을 발취한 것으로 구성되어졌다. 그것은 표면상으로 보면, 유학에 대한 朱熹의 견해를 발취한 하나의 選集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이 節要를, 朱子 全書가 교육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리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朱熹의 저작에 대한 길잡이로 유용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해도, 퇴계의 節要是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일상적인 選集에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後學을 위해서 편의상 학문의 도구로서 先學인 작품의 탄생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비록 節要在 그후에 몇 세대동안 한국과 日本의 유학자에 있어 朱熹 저서에 대한 안내자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애초에 퇴계의 朱子의 저서 전반에 대한 헌신적 탐구의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퇴계의 유학에 대한 평생의 탐구를 의미하는, 그의 학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서 본다면, 퇴계의 節要是 薛瑄(敬軒, 1392~1464)의 「讀書錄」과는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한 유학자 자신의 지적, 정신적인 탐구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면에서는 비견할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독서를 한 축적적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節要의 의미는, 그 사려깊은 注釋에 있을 뿐만 아니라 퇴계가 朱熹의 書信들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씨름했는가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설명적인 기록이라는 데도 있을 것이다.

퇴계가 원문의 세부에 대해 얼마나 소상한 주의를 기울이는가 하는

10) 투 웨이밍, (杜維明) 『朱熹의 理哲學에 대한 退溪의 창조적 해석』, *Korean Journal*, XXII:2(Fed. 1982) 4~15.

11) 言行錄, 7:5b(全書, VI, p.125).

것은 그의 「易學啓蒙傳疑」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1557년에 쓰여진 傳疑는 朱熹의 「易學啓蒙」을 바르게 읽는데 대한 기술적 문제들을 제시한다. 퇴계의 여러 해석에 대한 세밀한 통찰력과 원내의 비교에 대한 흥미, 역사적인 언급에 대한 熟知, 그리고 圓에 내재하는 섬세한 의미에 대한 관심같은 것들은 퇴계가 원문을 읽는 선결조건으로서 문헌학적, 어원학적, 음성학적 그리고 그외의 여러 언어학적 문제를 명료화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는 經典을 읽는 방법에 있어 朱熹의 진정한 계승자였다. 朱熹와 같이, 퇴계도 순수히 학문적인 문제들에 관여한다. 원문의 저자, 편자 그리고 전달자, 또한 주나 각주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또한 朱熹처럼 그도 학문적 논쟁을 판결하는 데 많은 기쁨을 느꼈다. 옛책에 대해 주석하고 편찬하는 고독은 작업이 퇴계에게 커다란 만족을 주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를 교과서적인 학자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그가 자신의 전 시간을 원문을 연구하는데 바치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주된 관심은 그 원문들을 통해서 聖人の 道를 체득하는데 있었다. 그가 원문을 연구한 것은 단순히 그 추상적인 사상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원문들은 道를 체현한 사람들의 기록이었다. 원문은 개이니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예와 방법으로서 그에게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朱熹는 그 자신으로서는 물론 聖人은 아니지만, 聖道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聖人이 될 수 있는 구체적 段階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 같았다. 朱熹는 이것을 엄격히 연구를 통하여 그 자신의 말을 빈다면 『堅苦工夫』를 통하여 행했다.¹²⁾ 물론 朱熹 혼자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多數의 뜻을 같이 하는 親舊나 門인들이 참여한 공동 작업에 있어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한 것은 사실이다.

12) 왕 마오홍(王懋竑), 朱子年譜(再版, 타이페이, 國立宮殿博物館, n. d), 四庫全書에 기초하여, II. 451b.

퇴계가 한 연구에는 원문뿐만 아니라 사람 자신도 포함된다. 공동 작업에 대해 퇴계가 중요시 했다는 것은 그가 朱熹의 後繼者로 간주했던 사람들의 생애와 사상을 개관하는데 주된 努力을 기울였다는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의 「理學通錄」은 1559년에 完成되었다. 이 책은 朱熹의 가르침의 직접 목격자였다고 퇴계가 간주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다. 이 通錄에는 485名이라는 다수의 學者가 포함되어 있다.¹³⁾ 대체로, 그는 각 항목마다 짧게 각 학자의 傳記를 소개하고 다음 그 學者의 기록된 學說들을 실었다. 그리고 각 항목은 그 학자의 편지에서의 引用文으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3분법은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무엇을 말했고, 그가 485명의 각 학자에 관해 무엇을 썼는가 하는 등의 한 사람의 취미에 대해서 알게 해 준다. 「理學通錄」의 편술에 참고된 문헌은, 그가 앞서 언급된 節要를 쓸때 익숙해졌던 「朱子大全」뿐 아니라, 「朱子語類」 그리고 戴銑(fl. 1496)의 「朱子實紀」, 그리고 기타 역사적 서적등이 있다. 퇴계가 이처럼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을 朱熹의 친우나, 제자 혹은 門人으로 규정짓는 데 있어 얼마나 비판적으로 選別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¹⁴⁾ 그러나 王統性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비차별적 장점을 그가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통된 인상은 다음과 같다. 퇴계는 朱熹에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朱熹의 적수였던 陵象山(九淵, 1139~1193)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과소 평가함으로써 「通錄」에 포함된 宋元의 유학자들의 선택에 있어 편협성을 보여준다. 퇴계의 정통성에 대한 근대의 비평가들이, 퇴계가 朱熹의 옹호자로서 그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학자들의 영향을 인정하는 데 주저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방향에서 탐구를 진행해 간다면, 우리는 李朝에 있어 陵象山고 王陽明의 心學이 그 공감자를 갖지 못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퇴계의

13) 宋秀元明理學通錄의 目次를 보라. 退溪全書, III. pp.250~254.

14) 위치 찬(陳榮揆), 「退溪는 朱熹를 어떻게 이해했는가」(未刊), pp.10~22. 또 그의 朱子門人을 보라(타이페이:學生出版社, 1982) pp.1~27.

朱子學에 대한 비타협적 집착에 있었으리라는 점을 쉽사리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퇴계가 한국에 陵王사상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후대의 유가사상에 대한 그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한국에서의 유학의 지적 발달이 朱熹의 理學쪽으로 기울게 했을 것이다. 사실, 퇴계의 창조적 해석을 통해서 朱熹의 學說은 한국 유학의 결정적 특성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퇴계의 정통성을 편협하다거나 편파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觀念일 것이다.

정약용((1762~1836)은 퇴계의 유학을 『存心養生』이라고 규정하였다. 나는 퇴계철학에 대한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사실상 나는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퇴계의 『心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퇴계 학문 전반에 관해 잘 이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錢穆은 朱子學의 한국에의 傳來에 관한 논문에서 퇴계사상에서 기술하고 있다. 퇴계가 스스로를 理學파에 속한다고 규정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心學에 있어 독창적 사상가였다고 主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퇴계가 眞德秀(1178~1235)의 「心學」을 연구하는 데 一生을 바쳤다는 것은 퇴계의 學問이 原文의 研究에서 얻은 지식 뿐만 아니라 내적인 통찰에서도 함양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平生 퇴계는 「心學」을 『神明』같이 믿고 『嚴父』와 같이 존경하였다.¹⁵⁾ 心經을 통해 儒道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가 40대에 朱熹의 著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心經에 대한 깊은 사려에 기인했던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그가 心經의 관점에서 朱熹에 接近했으리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실로 퇴계가 중국의 많은 학자들과 달리 朱子의 창조적 해석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心의 미묘한 作用을 통한 『道德的 主體性』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에 있었다.¹⁶⁾ 後世의 학자들이 陵王學과 程朱學을 날카롭게 대비하기 위해 使用했던 理學과 心學이라는 二分法에 대해 퇴계는 별로 개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15) 투 웨이딩(杜維明), 『李滉의 心에 대한 인식』, p.464.

16) 투 웨이딩(杜維明), 『朱熹의 理哲學에 대한 退溪의 創造的 해석』, pp.7~12.

그가 朱子를 택한 것은 主要한 실존적 결정을 포함하는 하나의 知的 선택이었다. 「自省錄」을 깊이 탐구해 보면, 그의 실존적 결정과 知的 선택이 수반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퇴계 死後에 발간된 「朱子書節要」의 서문에서 우리는 「朱子大全」이 한국의 文人들에게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소개된 것은 1543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퇴계는 그후 곧 그것을 탐구하려는 체계적인 계획을 착수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1558년에 발간된 그의 節要是 朱熹를 이해하려는 그의 10여년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다. 퇴계가 공직을 굳이 사양하고 은퇴한 학자로서 학문에 전념하고자 결정한 것이 1543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그의 年譜에는 퇴계가 비록 벼슬에 대해 강한 욕망을 가진 적은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강력하게 벼슬을 사양하기로 결심한 것은 43세 때였다고 기술되었다.¹⁷⁾

그가 朱子에 몰입한 것이 삶에 깊은 변화를 주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節要를 완성할 무렵쯤에서는 퇴계는 이미 자신을 朱熹와 동일화하였다. 내가 앞서 환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동일화는 결코 盲信이 아니며, 참된 儒道의 보존을 위해 朱熹의 사상과 생을 재현하겠다는 퇴계의 비판적인 자기 인식과 의식적 결정에서 비롯하였다. 節要和 더불어 퇴계는 朱子の 傳記(「敬軒」)에 대한 注도 하였다. 왕치찬(陳榮捷 : Wing tzi Chan)이 언급했듯이 퇴계의 注에는 朱子에 관한 역사적으로 흥미 있고 중요한 정보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¹⁸⁾ 퇴계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合當한 모든 서적에 대해 세밀히 고찰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朱熹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겠다는 퇴계의 결심은, 그로 하여금 일본의 유학자들에게 東아시아에서 가장 지식이 있고 훌륭한 학자라는 평판을 갖게 해 주었다.¹⁹⁾

17) 言行錄, 6:12b, 退溪全書, N, p.118.

18) 위치 찬(陳榮捷), 「退溪는 朱熹를 어떻게 理解했는가」 pp.2~6.

19) 다카하시 두루, 「李朝 儒學史에서의 理學과 心學의 발달」, 朝鮮支那文化の研

퇴계의 「自省錄」은 어떤 의미에서 「朱子節要」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처음 보기에 그의 「自省錄」이 日記나 告白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처럼 보인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왕복서신을 발췌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朱熹처럼 퇴계도 多作家였다. 물론 퇴계의 왕복서신들은 그 양에 있어서는 朱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朱子文集」에서 200여명의 사람에게 보내는 2,000통의 편지가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²⁰⁾ 그렇지만 퇴계의 편지들은 32개로서, 「退溪文集」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비록 실제의 편지 수에 있어서의 퇴계가 朱子の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퇴계의 書札들은 朱子の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길며 종종 長文의 別紙를 덧붙이고 있다. 朱熹와 같이 퇴계에서도 편지는 여러 목적을 위해 쓰여졌다. 그는 친척, 親友, 弟子, 師友 또는 知人들에게 안부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나 병에 대해 전하기도 하며, 그들과 학술문제에 관한 문답을 하며, 後學들에게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도록 독려도 하며,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明白히 하기도 하고 조정의 사상 풍토를 비판하고, 사회의 도덕적 가식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가 벼슬을 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自省錄」에 있는 그의 편지들은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생생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喪을 지내는 의식에 대한 해석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서신 하난를 제외하고서, 「自省錄」에 있는 21통의 편지들은 개인적으로 유학에 대해 논하고 있다--그 근본개념, 방법 그리고 그 실천적 의미에 관해서 이것은 그 편지들이 주로 학생들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편지들 어느 곳에서도 퇴계가 하나의 완성된 학자로서 그 숭배자들에게 인생을 사는 적합한 길을 가르쳐 주는 大家然하는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젊은이들에게 그가 부끄럽게 저질렀던 심각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도록 충고하는, 전쟁에서 몇번 敗北한

究, pp.141~281.

20) 陳榮捷의 계산에 기초함. 「退溪가 朱熹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p.23를 보라.

적이 있는 좌절한 兵士처럼 보인다. 이러한 軍人의 비유는 물론 퇴계의 생과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하튼 그때 그는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자아정의는 그가 경험하는 정신적인 고뇌의 강도가 높아서 그의 일상적인 심리적 용어에서도 나타날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분명히 자만심이 강한 학자로서의 삶을 영위하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전환하는 데 주된 노력을 경주하였다.

퇴계는 金惇叙에게 보낸 편지에서, 퇴계 당시의 사람들이 성급하지 않게 체계적인 독서를 못함을 비판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광대한 서적에서 몇가지의 사상을 파악하여 급히 그들의 지식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종래는 피상적인 지적이거나 무지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어던 학문적 성과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없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 비난을 스스로에게 돌린다.

『내가 과거 준비를 할 때, 나는 이와 꼭 마찬가지로였다. 게다가 나는 종종 병들로 피로했기 때문에, 나의 독서는 정밀치 못했다. 나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이제 나는 늙고 병약하다. 나의 정력을 회복하고 나의 결점을 보완하여, 後學들로 하여금 앞으로 정진하도록 독려할 방법이 없다. 나는 이 점에 대해 한 마디의 말도 할 수 없다. 최근에 와서 나는 특히 이러한 나의 과오에 대해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부끄러이 여기며 마음 속으로 스스로게 용기를 북돋우는 것일 뿐이다.』²¹⁾

퇴계가 자기비판을 하는데 얼마나 진지했는가를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당시 그는 이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하였고, 자신의 知的 地平을 확장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우리가 보기에, 「朱子書節要」는 대단한 업적이겠지만, 퇴계에 있어서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朱熹의 저서 대부분에 대해 정밀히 연구한 다음에야 비로소 퇴계는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있는 학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21) 自省錄, 1, 33b; 退溪全書, p.169.

것을 느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새로워진 의미 때문에, 퇴계는 자신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되었고,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 더욱 더 후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퇴계에 있어 뚜렷한 자기전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퇴계의 老年의 위기는 그가 朱熹의 저서에 정통해진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창조하기 위한 그의 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이미 하나의 권위자였던 때에, 자신의 학문을 아무런 선입관없이 정립 또는 재정립하기 위해 기꺼이 새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기비판은 보다 더 예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성리학자의 저서에서 비판적인 자기반성은 중요한 형식을 구성하였다. 자기전환의 무수한 예들을 우리는 성리학자들이 쓴 시, 수필, 疏, 또는 서신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朱熹는 자화상에 대한 짧은 언급에서, 자신은 儀와 法 속에서 의연히 거닐며 仁義의 집을 탐색하려는 고상한 이상에 맞춰 살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張載(構渠, 1020~1077)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주된 철학 논고에 「젊은시절의 顏回에게 행한,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가르침에 감명을 받은 程頤(伊川, 1033~1107)는 스스로를 경건하기 위해 「四箴」을 지었다.²²⁾ 퇴계의 반성의 독특성은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과오를 표현하는 그의 감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력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자 한 그의 여렬한 결의에 있다고 할 것이다.

奇高峯(大升, 1527~1572)에게 보낸 편지에 이 점은 충분히 나타나 있다.

『내가 일찌기 젊어서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師友의 지도가 없어서 조금도 얻음이 없었는데, 신병은 벌써 깊었습니다. 이 때를 당하여, 바로 산림에 들어가 일생을 마칠 계획을 결정하여, 초막을 짓고 고요한 곳에서 글을 읽고 뜻을 기쁨으로써 이르지 못할 것을 더욱더 구하여 2,

22) 二程集(四卷, 卍이장:中葬出版社, 1981), II. pp.588~589.

30년 동안 공부를 더 하였더라면 병이 반드시 성취가 없지도 않았을 것이니, 천하만물이 나의 즐거움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과거에 응하고 벼슬을 찾아서 잠깐 내 재능을 시험하여 보고 불가 할 때에 물러가려면 물러갈 수 있겠지 누가 또 나를 붙들어 매겠는가하고 생각을 하였으니, 당초부터 오늘날과 옛날이 크게 다르고 우리 나라와 중국이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선비는 去就의 義를 잊어버리고 致仕하는 예번이 폐지되어, 나의 虛名이 끼친 누는 오래일수록 심하여지고, 물러갈 길을 구하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진퇴양난이 되고 혈뜬는 의도는 태산같아, 극도로 위태롭고 조심스럽습니다.²³⁾

퇴계가 舉業(과거 준비)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고 후회하는 것은, 朱熹의 학문을 완성하고자하는 새로운 긴박성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朱熹의 저서에 대한 엄밀한 탐구에 의해, 聖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후, 퇴계는 스스로 자신의 학업을 시작할 수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즉 朱熹의 생과 사상되었던 학문의 眞義를 체인하려는 것이었다. 그 용어의 정통적인 유학적 의미에서 참된 것이라고 여겨졌던, 이러한 학문의 방식은 중국에 있어서는 朱子の 철학이 적절히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실되었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중국 명나라 때의 사상가들, 예컨대 陳白沙나 王陽明같은 이들이 聖人の 의도에 합당한 준비로써 지름길을 택하기로 결정한데 기인하고 있다. 그들이 朱熹의 보다 조화있고 보다 포괄적인 방식과 결별함으로써 중국에 있어 유학의 정신은 『頓悟』의 실천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 결과, 비록 그들이 자신을 佛學과 구분하고자 했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는 불교적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朱熹가 陵象山을 禪이라고 비난한 것은 옳은 것이다. 사실상 象山の 心學은 白沙나 陽明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면에 향도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퇴계는 이러한 단절된 전통을 다시 계승시키는 것을 자신의 『天命』으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에, 明朝의 중국이 아

23) 自省錄, 1:54a~b; 退溪全書, III, p.179.

나라 李朝의 한국이야말로 유학의 성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명감은 퇴계로 하여금 초조감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病弱이나 조정에서의 그에 대한 비방은 이것을 더욱 심화시켰다.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퇴계의 정신적 상태를 규정짓는 것으로서의 이러한 要人들에 대해 『客觀的』 타당성을 부여하기를 거부하기는 쉬운 것이다. 그는 아마도 약하기는 했지만, 심한 병을 앓은 적은 결코 없었다. 病弱은 아마도 하나의 변명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칠십이라는 老年까지 살았으므로, 58세의 자신을 노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과장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또한 그에 대한 태산같은 비방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신이 지극히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는 그의 느낌도, 실제적인 정치적 위협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기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퇴계가 우울증이었다거나 혹은 정치적 박해에 대한 망상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들은 모두 요점을 벗어난 것이다. 퇴계는 朱熹가 자신의 가족이나 제자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조정에 疏를 올려야 할 것이냐 올리지 말 것이냐에 대해 결정하고자 마침내 점을 쳤을만큼 갖고 있었던 근심같은 것은 경험하지 않았다.²⁴⁾ 또한 朱熹가 수년 동안 앓았던 각기병처럼 신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병도 앓은 적이 없는 것 같다.²⁵⁾ 그의 노년의 위기는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知的 자아정의 위기였다. 그렇지만, 다른 강력한 정신적 위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퇴계의 존재 전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自省錄에 포함된 것으로 鄭子中에 보낸 편지에서, 퇴계는 病中에도 朱熹의 저서를 읽는 데 많이 진력한 결과 朱熹의 사사에 대해 적절하고 친숙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즐거운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운 고백에 곧 이어서 그는 자신이 이해한 바를 다른 사람과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하늘이 자신에게 여생동안 얼마나 많은 學業을

24) 왕 마오홍(王懋竑), 朱子年譜, II, 4:41b~42a.

25) 그의 1190년의 기록에 그것은 오래된 病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Ibid., 4:6a.

성취할 시간을 줄는지 모르는 데 대해 개탄하고 있다.²⁶⁾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가치있는 것을 발견한 흥분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시간이나 정력이 그것을 할 만큼 남아 있지 않다고 느끼는 슬픔은 「自省錄」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논의에서 비추어 볼 때, 「朱子書節要」는 그의 예비적 작업의 결과 혹은 10여년동안의 훈련되고 꾸준한 지적 탐구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 진정한 巨匠으로서의 업적은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비적 탐구를 끝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퇴계의 근심이 일종의 놀람의 상태에 기인하는 것인가? 節要를 완성한 이후 퇴계가 당대에서 가장 지식 있는 朱子학자였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퇴계가 그 당시 학자로 처음 나올 때와 같은 신경과민을 겪었을 리는 없었다. 하여튼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 정확히 알만큼 이미 원숙한 학자였다. 그외에도 그는 공적으로 인정받는데 대해서는 별달리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사실상 그는 자신의 연구작업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비슷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구성된 소수를 자신의 청중을 갖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自身의 새로운 통찰에 대해 매우 흥분하였고, 그것에 관해 親友들과 의사소통 하는 데 관해 대단히 초조해 하였기 때문에, 「自省錄」에 있는 대부분의 서찰을 통해 보면 그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예컨대, 저 유명한 四七論을 일으킨 奇高峯에 보낸 그의 편지를 보면, 퇴계는 그의 友人들이 모든 일을 한데 묶어 실천코자 하는 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朱熹와 같이 퇴계도 비판적인 분석이 학문의 正法이라고 주창하였다. 어떤 것도 당연히 되어서는 아니되며, 미숙한 종합은 기피하여야 되고 말의 세밀한 차이까지도 철저히 탐구되어야 한다.²⁷⁾ 이러한 퇴계의 접근이 함축하는 바는 광범위하다. 우선 첫째로,

26) 自省錄, 1:11b; 退溪全書, III, p.158.

27) 自省錄, 1:61a~62b; 退溪全書, III, p.183, 年譜에 따르면, 退溪가 奇高峯의 편지에 회답하여 四端七情을 논변한 것은 嘉端 三九年(1560年), 11월이었다

自명한 진리로서 여겨져 왔던 원문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 때때로 상충하기도 하는 여러 상이한 해석 전략들은 분석되어야 한다. 난해한 原文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헌적이고 의미론적인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朱熹의 『四書集注』를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或問』에 있는 그의 注에 관한 問答이라든가, 『朱子語類』에 있는 四書에 관한 朱熹의 일반적 논평같은 것들 모두를 참조하여, 朱子の 최종結論 뿐 아니라 그가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복잡한 과정들까지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관해 퇴계는 자신의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학업이란, 하나의 靜的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련됨으로서 풍부한 질감을 지니게 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화같은 것이었다. 여하튼 朱熹가 71세의 나이로 죽기 사흘 전에 大學에 대한 자신의 注에서 몇 글자를 수정했다는 일화는 퇴계에게 틀림없이 깊은 感銘을 주었을 것이다. 퇴계는 朱熹가 모범을 보인 바와 같이 진정한 학문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요구하며, 자신의 살아있는 실존이 그것의 한 구성부분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다.

학문에 대한 朱熹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퇴계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敬』과 『精』의 사상이었다. 퇴계는 자신의 제자 權好文에게 보내는 答書에 유학을 『敬으로서 마음을 보존하고 情하게 글을 읽는 일』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있고 많은 계단이 있는고로, 그는 덧붙이기를 만약 辛苦스런 것을 참고 번잡스런 것을 이겨 심분 精力을 쓰지 않는다면, 그 울타리를 들여다보기도

고 되어 있다. 言行錄, 7:9a~13a를 보라 : 退溪全書, VI, pp.127~129. 그 당시에 이미 四七論辯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奇高峯에 답하여 四端과 七情을 理와 氣로 分離하는 문제에 관한 첫 편지』라고 간주되는 이 편지는 아마도 1559년 봄에 쓰여졌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自省錄序가 이 편지보다 앞서 쓰여졌음이 분명하다. 1559년 봄에 쓰여졌으리라고 보여지는 다른 편지들도 있다. 그것들은 아마도 後에 自省錄 속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용이치 않는데 하물며 그 문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였다.²⁸⁾ 敬으로서 마음을 보조하는 것은 체계적 讚書의 선결조건이다. 마음은 집에서 주인과 같다. 만약 주인이 없다면, 그 집은 강도당하기 쉽다. 강도당한 집은 그 내적인 질서나 방어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마음이 방황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진실한 학문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敬의 정신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수양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신적 태도로서의 敬은 꾸준한 실천을 통하여 서서히 발전할 뿐이며,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마음의 수양은 靜과 動의 균형을 유지하는 어려운 기술을 포함한다. 균혀있는 마오이라는 좁은 길을 따라 여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훈련이 요구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기질을 敬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여하에 달려 있다. 精하게 글을 읽는 방법 또한 자기교육이라는 길고 점진적인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적절한 중요도의 순에서 따라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朱熹의 방법을 체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 원문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서는, 精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적이고 깊이있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은 무미한 것처럼 보이는 원문의 구절들의 묘미를 알게 되고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오직 그때가 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원문에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갖다붙이는 명백한 오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은 精하게 글을 읽는 기술을 향한 첫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퇴계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만큼 충분한 시간을 결코 갖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사소한 일에 자신의 精力을 분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王이 새로운 官爵을 부여하며 그를 서울로 계속하여 소환하고자 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 자신의 벼슬을 사퇴하는 辭狀을 쟈 때마다 그의 품계는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그가 명성을 얻고자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558년 가을 내키지 않는 內京을 하게 됨을

28) Ibid.

퇴계는 하나의 재앙처럼 느꼈다.²⁹⁾ 정치적 권력과 영향의 중심에 있던 이 4, 5개월은 퇴계란 知的이나 정신적으로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정과 같은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갖게해 주었다. 그는 관직에 봉사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儒道를 쫓는 사람이 미숙한 상태로 그것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굳게 믿었다. 관직을 탐내지 말라고 高峯에게한 퇴계의 충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선비가 일단 朝廷에서 하나의 벼슬을 얻으면, 그는 낚시에 걸린 생선과 같게 된다. 그 성격이 強하고 직선적인 사람들은 한 당파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도모한다. 弱한 사람들은 오로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를 서로에게 가르칠 수 있을 따름이다.』³⁰⁾

더우기 퇴계는 高峯에게 致仕의 예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치에 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는 고상하게 물러설 방법이 없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자기처럼 병든 신하로서 사퇴를 청하려해도 어려운데, 高峯은 그러한 구실마저 없으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¹⁾

퇴계의 老年의 위기에는 일종의 역설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는 유가 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제공받았지만, 유학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사람들은 도대체 유학이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다. 만약 朱熹가 그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그것을 수락하기를 거부하였겠는가? 朱熹는 죽기 조금전에도, 儒家의 儀體를 탐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허락되지 않았다.³²⁾ 이와 대비해서 퇴계는 成均館 大司成으로 장기간 봉직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퇴계는 틀림없이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朱熹의 편지를 통해 어떤 교훈으로 받았었

29) Ibid, 1:71b;III, p.188.

30) Ibid, 1:74b;III, p.189.

31) Ibid., 74b~75a;III, p.189~190.

32) 왕 마호흥(王懋愷), 朱子年譜, II, 4:45b~47a.

을 것이다. 사실상 퇴계의 「朱子書節要」의 첫 부분은, 뜻을 세운 儒家의 선비가 관직에 나아갈 때와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出處」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³³⁾ 퇴계는 朱熹의 교훈이 뚜렷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있었던 主된 관심은 『本原之地』의 함양에 있다는 것이다.³⁴⁾ 政治的 책임감을 비롯한 기타의 고려 사항은 그 輕重에 따라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³⁵⁾ 퇴계는 老年의 위기를 자신의 모든 시간과 精力을 爲己之學에 돌림으로서 극복하였던 것이다. 1559年 「理學通錄」의 완성, 1560年 陶山書院의 설립, 수년간의 四七論辯 등은 동아시아의 유학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³⁶⁾ 퇴계의 실존적 결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었다.

퇴계가 비록 정부의 요직과 관계를 끊을 굳은 결심은 하였지만, 그의 조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높아만 갔다. 전형적 선생이라는 그의 위치가 그를 관직자 가운데서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를 비방하는 자들은 퇴계가 「戊午辭職疏」에서 戊午年(1543) 이래 자신이 여러 번에 걸쳐 사퇴를 허락하거나 또는 더 낮은 직책을 청원했었다는 것을 王에게 直疏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퇴계의 겸손때문에 그의 적들은 그에게 하등의 효과적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퇴계의 겸손이란 것은, 그의 비방가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허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퇴계의 인물됨의 결정적 특성이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1558年 정치에 뛰어들었다더라면, 퇴계는 아마도 成均館의 學制를 개편한다거나, 유망한 弟子를 양성한다거나 또는 관료제도에 이어서 자

33) 朱子書節要, 1~2, 李退溪全書, 2卷, 아베 요시로(토요코오:退溪學研究 1975), I, pp.8~47.

34) 自省錄, 1:75b~58a:退溪全書, III, p.181.

35) 言行錄, 7:9b~13b:退溪全書, VI, pp.127~129.

36) 투 웨이밍(杜維明), 『李退溪의 人性에 대한 認識; 한국 性理學의 四七論에 대한 예비적 고찰』, 韓國性理學에 대한 學術會議, 美國 學者위원회와 예일 大學 주최, 레이크 코모, 이태리, 8月 3~7日, 1981. 또한 서문상의 『李朝 韓國 儒家들의 궁극적 관심:理氣論 分析』을 보라.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5.(ACLS. SSRC의 韓國學 共同委員會, 1977년 3월), pp.20~66.

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킨다거나 또는 관료제도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킨다는 등의 일을 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가 理學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계속하거나, 陶山書院을 설립하거나 또는 李朝에서 가장 탁월한 朱熹의 창조적 해석가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해서, 퇴계는 동아시아의 大儒學者의 대열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퇴계는 68세때인 1568년에 서울에 되돌아갔다. 그의 「戊辰大條疏」와 「聖學十圖」는 이때 젊은 왕으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의 근원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이것들은 구후 300여년 동안 한국 儒生들의 기본서가 되었다. 知的인 자기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한 수년을 상징해 주는 퇴계의 「自省錄」은 그가 老年에 자신의 학문적 열정을 실현하고자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출발은 가장 엄격한 학문과 敎人の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퇴계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지은, 『眞城 李氏의 陶山으로 은퇴하여 여생을 숨어살다』³⁷⁾하는 碑文은 우리에게 그가 고독 속에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웅변해 준다.

(이 재 희 譯)

37) 言行錄, 7:57a; 退溪全書, VI, p.151.